

적정규모학교 육성 따른 폐지학교 행정업무 지원

전북자치도교육청, 매뉴얼 제작·보급 학교 폐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등 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른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으로 폐지학교가 생겨나면서 해당 학교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작했다. 매뉴얼은 △학교 폐지업무 추진계획 수립 △기록물·폐기 공인 이관 △학교회계 관리 △물품·재산 및 시설물 관리 △각종 해지 및 신고 등 총 10개

분야로 구성했다. 이날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3월부터 7월까지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 제작 TF를 운영, 학교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학교 폐지가 결정된 이후부터 추진 시기별 업무 내용을 작성, 예시와 서식 위주로 수록해 업무담당자가 매뉴얼을 참고해 빠르고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은성 기자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10일 창조나래 2회의실에서 2025년 2월 말 폐지에 예정 학교 행정실장 및 업무담당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상 학교는 군산 개야도초·신시도초·금암초·마동초, 김제 심창초, 고창 선동초, 임실 신덕초·운암중 등 8개교다. 조철호 행정과장은 "2023년 이후 학교통합 추진으로 폐지학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폐지학교 행정업무 매뉴얼이 없어 업무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이 폐지학교 업무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9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B프로그램 확대 통한 인재 양성에 최선”

서거석 교육감, 김제서 학부모·교직원과 '공감토크'

서거석 교육감은 9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공감토크에서 학력신장 등 10대 핵심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한 후 참석자들과 △AI 기반 미래교실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전북형 늘봄학교 확대 △특수학교

확대 △IB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소통했다. 학부모와 교직원들은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 서부권 특수학교 등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제는 최근 2차 교육발전특구에 선정, 소규모 다문화 국제학교 운영과 IB프로그램 적용 학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서 교육감은 김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교생 중

79%가 다문화 학생으로 구성된 월성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지난 6월 11일 무주에서 시작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는 오는 12일 고창에서 마무리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중요해졌다"면서 "IB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인권골든벨 도전하세요”

25일 전주우림초 강당서 공동 개최... 13일까지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오는 25일 전주우림초등학교 강당에서 청소년 인권골든벨을 공동 개최한다. 인권골든벨은 인권에 대한 퀴즈 풀이 형식으로 모두 3라운드에 걸쳐 경쟁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사전 예시 문제를 공개하고, 행사 당일에는 이벤트와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예시문제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누리집-정보마당-센터자료실-107번에 탑재돼 있다. 이 행사는 중학교 학령(12~15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참여 기회가 보장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2인 1팀으로 팀을 구성해 학교나 청소년 기

관·단체를 통해 오는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순 50개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최종 우수팀 3팀에게는 도지사 상(1팀)과 교육감상(2팀)이 주어진다. 김명철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퀴즈 풀이 형식의 행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인권교육 효과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참여하는 청소년이 모두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과학영재교육원, 과학꿈나무키움교육 성과 발표

수학·생물 등 5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연구 성과 공유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정덕호)은 지난 7일 사범대 과학관에서 전북과학꿈나무키움교육에 선발된 초등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성과 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과학꿈나무키움교육은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위탁받아 시행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과 생물, 지질, IT 융합 4개 분야에서 주말을 비롯해 여름방학 집중교육, 야외 조사 활동 등을 통해 수학 과 과학에 흥미를 가진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 동량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교육이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수학 분야에서 김대열 교수의 지도로 행렬 곱셈의 반복에 대해 공부하고, 생물 분야에서는 김익수 명예교수(전북대 생물학과)로부터 전주천 생태계 보존에 대해, 오창환 명예교수(전북대 지구환경과 학과)는 한반도 지질 역사와 전북의 지질에 대한 교육이 각각 이뤄졌다. 특히 IT 융합 분야에서 SW 중심대학 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 블록 코딩을 활용한 드론 군집 비행을 직접 체험하며 드론 산업에 대한 시야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홈커밍데이 개최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조덕현)은 9일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 선도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창업자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매년 다양한 기수별 참여자 간 소통 및 교류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진행하는 등 창업자들의 생존을 및 사기 고취를 이끌어내고, 광범위한 전주다운 네트워크 구축을 이끄는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의 연례행사다. 올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전주다운 문화관광형 창업선도사업의 다양한 기수의 참여자들이 참석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 '성과'

전북 학생들, 최우수 1·특상 2·우수 6팀 등 수상 영예 최우수상에 군산지곡초 전강호 '올인원 양손 스포이트'

제45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최우수 1팀, 특상 2팀, 우수 6팀, 장려 9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학교육원(원장 조현정)에 따르면 전국대회 출품을 위해 치러지는 전북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 총 169 작품이 출품, 이중 85작품이 본선에 올랐고 최종 18작품이 전국대회에 진출했다. 이 대회는 과학적 사고와 창의적 발명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작품으로 널리 보급할 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창작품을 선발하는 대회로, 창의성, 탐구성, 실용성, 노력도, 경제성 등으로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이 중 기존의 스포이트와는 달리 양손을 사용하는 방식의 스포이트로 안정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안한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올인원 양손 스포이트'(군산지곡초 6년 전강호, 지도교사 노선화)가 최우수상을, 지도교사는 지도논문연구대회에서 1등급을 받았다. 조현정 원장은 "전북에서 치러지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원하는 만큼 정확하게 올인원 양손 스포이트' (사진=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 제공)

는 예산 및 본선대회를 통해 우수한 작품이 선정되고,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배출하는 등 우리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과학교육원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 및 발명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교육청, 정책사업 추진 성과 우수직원 포상... 12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우수직원을 포상했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정책사업 추진 성과, 국·시비(특고) 예산확보, 주요사업 목표 달성 등 실적이 우수한 직원 12명을 선정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아 우수 직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수상자로는 △교육특구 선정정책기획과 장학사 박수진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미래교육과 주무관 김형주·조준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선정(중등교육과 주무관 송구) △학교교육문화 시설 건립(교육협력과 주무관 이혜진(사진))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창의인재교육과 장학사 조금신) 등이다. 이들에게는 교육감상 및 소정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약 등 신규 정책의 과감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우수직원 포상을 통해 기존 관행을 탈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28 대입전형 이해 돕는다

전북교육청, 오늘부터 도내 14개 시군서 입시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일 정읍을 시작으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2028년 대입전형 이해와 준비를 위한 지역별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8년 대입전형 개편안에 적용을 받는 중3 학생 등을 대상으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강사들은 변화된 대입전형은 물론, 고등학교에서의 학습법, 과목선택, 진로탐색, 대입 진학 등을 안내한다. 특히 내신 5등급 체계, 통합형·융합형 수능 등 고교 내신과 수능에서의

변화,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학과 확대 등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대입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전북교육청은 수험생에게 보다 많은 입시설명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설명회와 상담 토크를 대폭 늘렸다"면서 "앞으로도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도 스스로 학업 설계와 진로·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시설명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과학축전서 드론축구 체험부스 운영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6~8일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진행된 '2024년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에 참가해 드론 축구 체험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LINC 3.0 사업단은 도내 초·중·고교 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차전지, 스마트 농생명 등 전북 핵심 산업과 로봇 등 미래 과학기술 콘텐츠의 체험을 목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LINC 3.0 사업단은 드론 축구 체험 부스(스카이킥)를 운영, 참가자들이 에어비우스로 만들어진 드론 축구 유소년 경기장에서 골키퍼가 될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반도체소부장형신용합대사업단은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 A&M 대학교 컴퓨터 및 전기공학부(이하 CSE)와 반도체 교육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대생들, 미국서 반도체 연구한다

텍사스에이앤엠대학과 협약... 올 겨울방학부터 현장 체험

전북대학교 반도체소부장형신용합대사업단(단장 이종열)은 미국 텍사스주 텍사스 A&M 대학교 컴퓨터 및 전기공학부(이하 CSE)와 반도체 교육 협력 및 인적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미국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종열 단장과 김기현 부단장, 텍사스 A&M 대학교 CSE의 코스타스 조르지아데스(Costas Georgiades) 학부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반도체 관련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교육·연구 포함) 및 시설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교육 및 견학 등에 대해 전반

적으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나노 반도체 교육을 위해 텍사스 A&M 대학교 반도체 공정실(Aggie Fab), 사이클로트론(Cyclotron) 중이온 입자 가속 실험 시설 등에 전북대 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올해 동계 방학부터 현장 체험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종열 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단 참여 학생들이 반도체 관련 세계적인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시작으로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취업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전북과학축전 참가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지난 6~8일 어린이창의체험관 일대에서 개최된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과학축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온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해 LINC 3.0 사업 운영성과를 전시하고, 초·중·고교 학생들이 과학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며 접할 수 있는 태양광 무게중심 비행기 만들기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최승훈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내 초·중·고교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미래 신산업 관련 첨단 과학기술부터 일상 생활과학까지 손쉽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